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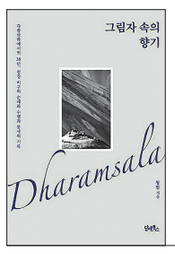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6	흔들릴 땐 마음수업	법상	모과나무
2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7	달빛처럼 꽃향처럼(자애경 강의)	아신빤딧짜	붇다담마연구소
3	무아 윤회 문제의 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8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관음기도	불영 자광	민족사
4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	임시연	담앤북스	9	몽산법어언해	장윤희	채륜
5	이뭣고(경봉스님수행담)	김현준	효림	10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범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도표로 읽는 유식입문:마음이란 무엇인가	안환기/배종훈 그림	민족사	6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3	위없는 지혜:금강경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8	맛지마니까야(1) 중간길이로 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 허주형	운주사	9	디가니까야(3) 길게 설하신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아비담마 실천하기	아신 자나까비왐사	담앤북스	10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다람살라에서의 38년



그림자 속의 향기
청전 스님 지음
담앤북스 / 1만6800원

달라이라마 첫 한국 제자 청전 스님
5년만 에세이…수행·순례·봉사 회고
25년째 자비나눔 "청빈 자체가 수행"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987년 7월 1일 인도에 첫발을 디딘 후 달라이라마 존자님과의 인연으로 다람살라 한자리에서 38년을 지냈습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 아직도 인도에 있냐고, 나이가 적지 않으니 이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안부를 겸해 묻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다람살라가 '고향'입니다. 책으로 소식을 전한 지도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 그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첫 한국인 제자인 청전 스님이 신작 에세이 〈그림자 속의 향기〉를 펴냈다. 그간 네 권의 에세이를 낸 스님이지만 이번 책은 "좀 자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의 삶과 인생철학 그리고 수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수행기, 오지 마을에 전한 자비나눔 활동, 다람살라와 한국을 오가며 펼친 구도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청전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후 다니던 전주교육대학을 자퇴하고, 가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구산 스님을 만나 1977년 송광사로 출가했다. 이후 10년간 지리산 백장암, 망월사, 해인사, 범어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1987년 성지순례를 떠난 인도에서 운명처럼 달라이라마를 만나 북인도 다람살라에 터를 잡고 티베트 불교를 수학하며, 달라이라마의 한국어 통역과 법회 수행을 도왔다.

책에는 출가에서부터 달라이라마와의 첫 만남, 다람살라에서의 수행, 폐관 수행 등 티베트 불교 수행 전통, 스님의 일상을 담았다. 특히 아침마다 직접 빵을 굽고 가을이면 히말라야 감을 익혀 갈무리하고 겨울철이 오면 손수 김장하는 스님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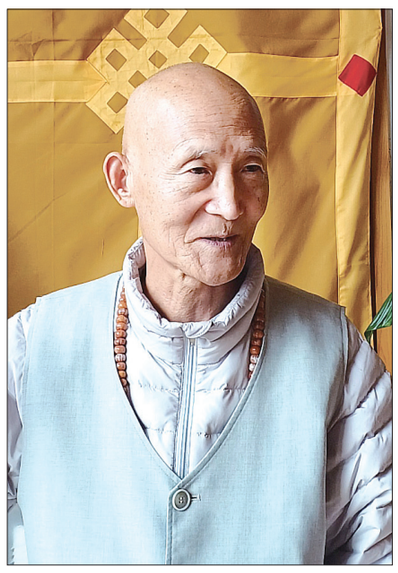
라다크에서의 자비 나눔 활동도 자세히 소개한다. 스님은 2000년부터 히말라야를 넘어 라다크의 곰빠(절)를 방문해 의약품과 생필품을 나눠 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던 당시에는 해발 4000~5000미터 고개를 몇 개나 넘고, 다시 말과 나귀에 물건을 실어 마을까지 날라야 했다.

소독약과 진통제,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은 직접 나눠주고 특수한 약이 필요한 이들은 시내 약국이나 병원으로 안내한다. 백내장 등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기꺼이 수술비를 내준다. 라다크의 사람들이 청전 스님을 '착한 의사(Good Doctor)'라 부르는 이유다. 요즘은 노스님들의 틀니를 맞춰 주고 고산지대 주민들에게 태양열로 가동되는 소형 전기장판을 나누고 있다.

이 같은 봉사활동을 해 온 공로로 2015년에 만해대상(실천분야)을 수상했다. 스님은 봉사에 대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일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서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이 수행과 봉사 외에 또 하나 마음을 쓰는 일은 순례다. 평생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라다크와 티베트의 노스님들을 모시고 몇 차례나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여권을 만드는 일부터 숙소 예약, 여행지 안내 등 모두가 스님의 몫이지만 난생 처음 부처님 탄생지를 참배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또다시 순례를 구상한다.

가난하지만 맑은 눈빛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들을 보며 청전 스님은 말한다. "성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같아져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며 "청빈 자체가 수행"이라고.




1987년 인도에 첫발을 디딘 청전 스님은 달라이라마와의 만남 이후 지금까지 38년간 다람살라에서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2007년 라다크의 틱세 곰빠에서 노스님 무릎에 파스를 붙여 주는 청전 스님.


2024년 라다크에서 메메 체링 스님, 꾄촉 도제 스님과 함께한 청전 스님.
사진 제공=담앤북스

새로 나온 시집

경봉 스님 선법문 엮은 '수행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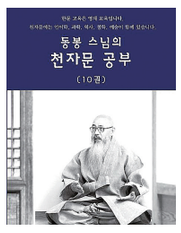


이뭣고
김현준 엮음
효림
8500원

근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이다. 경봉 스님의 유발상좌인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은 "스님의 법문을 최대한 모아 두 권의 책으로 펴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지난해 7월 '생활도담집' 〈사바를 무대 삼아 멋있게 살아라〉를 출간했다. 〈이뭣고〉는 '수행도담집'으로 경봉 스님의 수행담과 참선에 대한 가르침, 선사들의 무애자재한 이야기를 가려 담았다. 표지에 사용된 '이뭣고'는 스님의 친필이다.

책을 엮은 김현준 원장은 현재 월간 '법공양' 발행인 및 편집인, 효림출판사와 새벽숲출판사 주필 및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자로 푼 천자문 해설 10권 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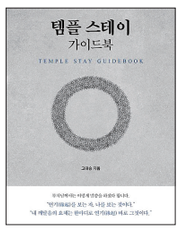


동봉 스님의 천자문 공부 10권
동봉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1만8000원

동봉 스님(광주 우리절 주지)이 2023년부터 펴내고 있는 〈천자문 공부〉가 드디어 10권으로 완결됐다. 10권에서는 '주참적도(誅斬賊盜)'부터 마지막 구 '언재호야(焉哉乎也)'까지를 풀이한다. 낱글자를 하나하나 파자(破字)하며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낸다.

동봉 스님은 "한문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언어와 자연, 관계의 이치를 배우게 되고 인문·역사·예술적 소양이 높아진다"며 "천자문을 통해 자신을 보는 마음이 생긴다면 스스로의 잠재력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곤지암 우리절 창건주이자 회주로 책과 법문 등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재가수행자가 전하는 불교 가르침



템플스테이 가이드북
고대승 지음
좋은땅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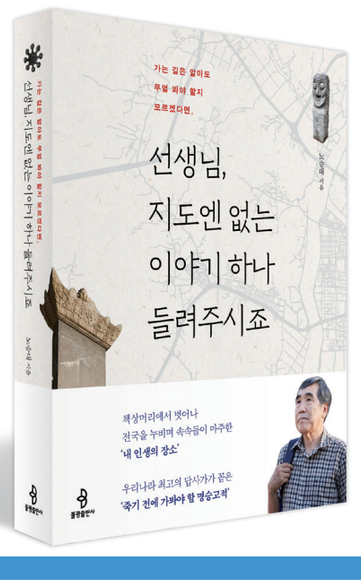
제목은 〈템플스테이 가이드북〉이지만 불교의 주요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사성제, 팔정도, 오계, 육바라밀, 윤회, 중도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서술한 책이다. 저자는 연기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기법이란 자연 세계와 인간 생활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변함없는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환생과 윤회에 대해선 "환생은 불멸의 아트만이 몸을 바꿔 존재하는 것으로 오직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 윤회는 의식의 흐름에 관한 개념으로 철저히 인연생기(因緣生起)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길을 걷다 멈춘 곳에 이야기가 있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전국을 누비며 마주한 **내 인생의 장소**
우리나라 최고의 답사가가 꼽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승고적**

가는 길은 알아도
무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지음
520쪽 | 올컬러 | 32,000원



청룡열차보다 흥미진진하고,
유명 관광지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길 위의 박물관,
우리 땅 인문 여행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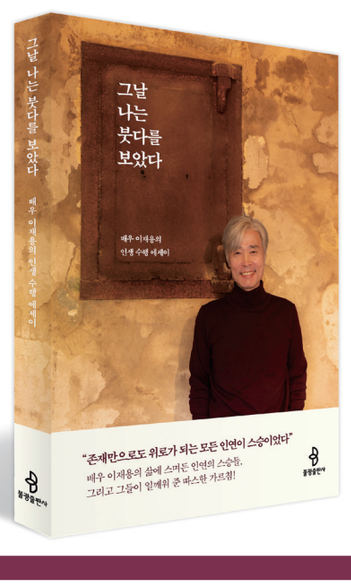


불자이자 배우 이재용의 삶과 수행,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마음이 공허하고 울적할 때
곱씹을수록 재밌고 가슴 뭉클해지는 에피소드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된다.

배우 이재용의
인생 수행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지음
240쪽 | 18,000원



이 책에 담긴 글이 예사롭지 않다. 삶을 관조하고 세상을 달관한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울림이 있다. 한 편 한 편이 감동 그 자체다.
●● 강원국(《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문장은 뜨겁고 사유는 깊다. 이것은 배우 이재용이 써내려간 '살아있음'의 기록이자, 혼란한 세상을 떠도는 모두에게 끈질기게 질문하는 책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냐고.
●● 김별아(소설가)

이 책의 독자들은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난 뒤 세상의 수많은 작은 것들이 사소하지 않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은 참 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말이다.
●● 김경일(인지심리학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